

형벌과 두려움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아벨이 흘린 피가 땅에 흘러졌고 그로 인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 범죄 이후 가인은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농부였던 가인에게 주어진 형벌이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 창세기 4:12**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과 땅에 피하여 유리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은 여기까지였다. 그러나 여기에 두려움이 더해졌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었다. 두려움은 죄가 가져온 열매 중 하나였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인의 두려움이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낫을 밍글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 창세기 4:14**

두려움은 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가인은 살인자였다. 가인을 만나는 사람마다 가인을 죽이고자 마음 먹게 되는 것 역시 두려움 때문이었다(죄와 두려움은 언제나 함께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면 가인이 받은 벌의 칠곱 배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누가 봐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어떤 표를 가인에게 주셨다. 그래서 가인은 죽임을 면할 수 있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늦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 창세기 4:16-17**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리고 성을 쌓았다.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했지만 늦 땅에 거주하며 자식을 낳고 성을 쌓았다. 더 이상 유리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 정착하겠다는 뜻이다. 늦의 뜻은 ‘유리하다’였지만 가인은 더 이상 유리하기를 거부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었다. 성의 이름은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불렸다. 자신은 유리하는 자가 되었으나 아들 에녹은 성을 소유한 정착민으로 살게하고 싶었던 것이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리하는’ 형벌을 자기 당대에 끝내고자 했다. 여호와 앞을 떠났고 여호와께서 주신 형벌도 스스로 종료시켰다.

가인의 자손들은 에녹성을 중심으로 번성했고 다섯 세대가 지나 라멕이 태어난다. 라멕은 처음으로 두 아내를 맞이하여 일부다처를 시작한 인물이 되었고 자신에게 상처나 상함을 입히면 나이 어린 소년이라도 죽여 버렸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쉴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리보다 하였더라 / 창세기 4:23-24**

아벨을 죽인 가인을 죽이면 칠 배의 벌이 주어진다라는 선언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라멕은 자신을 죽이면 칠십칠 배의 벌이 주어질 것이라 스스로 선언한다.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의 후손은 스스로 여호와를 대신하여 형벌을 선언하는 사람이 되었다.

라멕의 세 아들은 가축을 치고 악기를 만들어 음악을 연주하며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무기)를 만드는 자들이 되었다. 가인이 쌓은 성에서 가인의 자손들은 더 많이 생산하고 즐기며 강력한 힘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 그들은 부유했다. 안전한 성에서 거주했고 강력한 무기도 있었고 문화적으로 풍요로웠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인 유리하는 삶은 가인이 성을 쌓고 거주함으로써 끝내 버렸다. 그들은 점점 부유했고 세련된 삶을 영위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점점 더 잔혹한 사람들이 되어갔다. 여호와 앞을 떠나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간 결과였다.